

Paper Session 4	발표일시(한국시간): 2021.12.28(화) 16:00~17:30
International Alliances and Individual Efforts	

### 논문 1

중국 불교여성공동체, 남중국해를 가로질러: 여러 국가 속 역사와 다종교간 대화  
Ying Ruo SHOW(잉 루어 쇼) / 번역 정형은

요약:

중국 불교를 연구하는데, 많은 관심을 받은 저명한 비구 또는 비구니 스님들과는 달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불교여성들에 관한 역사기록은 많지 않다. 아주 오래 되었지만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여성 종교 지도자의 리더십의 전통이 남중국해를 가로질러 상호 연결된 불교 여성공동체를 구축하는 열쇠이다. 여성의 신앙심과 네트워크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민족지학적 통찰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 민족 대이동에 있어 중국 여성은 국가간 불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미미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중국 본토와 남중국해 지역의 중국 불교를 이어주는 주요 연결점이다. 중국 여성 불자들이 활기차게 활용하는 SNS 는 현대적인 감각과 젠더, 채식주의와 중국-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간 신용 네트워크를 교차하는 불교 역사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일어나는 중국 대승불교의 젠더 불균형의 문제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우선 현대의 젠더를 반영한 불자들의 이주 패턴에 관한 토론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구축하는 데에 공헌하는 불교 여성들의 다양한 역할들을 보여준다. 여성 중심의, 다지점적 측면과 다중언어와 학제간 접근 방식을 이용한 본 논문은 현장에서의 중국 불교의 재발견과 창의적 각색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불교 공동체들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여성 중심”의 불교를 중요시해야 할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발표자 약력:

**Ying Ruo SHOW(잉 루어 쇼)**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아시아 문제 연구소의 종교와 세계화 연구팀(Religion and Globalisation cluster, Asia Research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동대학에서 중국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중국 불교의 여성과 젠더, 여성의 종교 네트워크, 중국 디아스포라와 중국의 종교 문헌에 관해 다수 논문을 발표했다. 쇼 박사는 현재 “싱가포르의 여성과 종교, 지도를 제작하다: 사회-문화 연결고리로서의 중국의 비구니 사찰(19세기에서 현재까지)(Mapping Female Religious Heritage in Singapore: Chinese Female Temples as Sites of Regional Socio-Cultural Linkage (19th Century to the Present))”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국립 문화유산의 후원을 받고 있다.

## 논문 2

### 중국의 비구니 행각승(行脚僧)에 대한 사례연구

런루(Renru) 스님/ 번역 김유성

#### 요약문:

중국에서는 비구와 비구니 스님 중 계를 받은 후 정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신 이들은 스승을 찾아서, 혹은 가르침을 찾아서, 포교를 위해, 또는 수행을 위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닌다. 이런 출가자들을 ‘행각승’이라고 한다. 이들 행각승들은 의식주를 제공하는 사찰 소속 비구나 비구니들에 비해 독립적이다. 이러한 독립성이 이들을 정치적, 제도적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지만, 사찰의 상주 대중으로 소속되어 살지 않기 때문에 고정 수입과 거처가 없어 승려로서의 생활이나 수행을 해나가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비교연구, 인터뷰 등을 통해 오늘날 중국의 비구니 행각승들의 현황을 고찰한다. 필자는 아래의 질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 (1) 현대사회에서 행각승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 (2) 이들이 행각을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 (3) 비구니 행각승들은 어떻게 수행하는가?
- (4) 행각승들은 어떻게 생계를 해결하는가?
- (5) 행각승들은 승단이나 종단과 어떻게 교류하는가?

중국 본토의 한 비구니 스님과의 집중 인터뷰를 통해 위의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한다.

#### 발표자 약력

**런루 (Renru)스님:** 랑카스터 대학(Lancaster University) 종교학 박사과정에 있다. 중국정법대학(中國政法大學)에서 법학 학사, 홍콩대학(香港大學) 불교학 석사, 호주 난티엔 대학원(Nan Tien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에서 응용불교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 논문 3

#### 현대 한국 비구니의 리더십: 인홍 선사(1908-1997)

정완스님

막스 베버는 “카리스마”가 성격유형이나 일련의 신이한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현상인 권력 관계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 카리스마에 대한 그의 견해는 사회사 전체에 적용되어 왔지만, 한국불교에서 카리스마적 다이내믹스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현대 한국 비구니 승가의 카리스마적 리더였던 인홍(仁弘, 1908-1997)선사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카리스마 또는 카리스마적 권위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카리스마”는 주로 개인의 진실성과 비전으로 구체화되는 뛰어난 리더십의 지위가 만들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리더와 팔로워 사이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본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상황 요인은 리더의 카리스마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부르디외가 카리스마를 일종의 상징자본으로 생각한 것처럼 이것을 획득하는 과정, 그 특징과 영향력의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종류의 상징자본과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카리스마적 자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까? 본 연구는 한국 비구니 승가에서 카리스마적 리더와 팔로워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현대 한국불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카리스마적 권위의 좀 더 일반적인 동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논문 4

### 인도네시아 여성 승원의 새로운 시대

베니따 타누수위토(Venita Tanusuwito)/ 번역 은산스님

#### 요약문:

비구니 수계를 둘러싼 문제는 불교계의 많은 곳에서 공유되고 있다. 한국, 스리랑카, 태국과 같은 국가에서 새로운 비구니 그룹이 싹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불교도를 포함하는 소승불교 전통의 여성들에게 구족계를 받는 일은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비구니 두 분인 티타차리니(Thitacarini)와 담마차리니(Dhammacarini) 스님들이 소승불교 전통에서 구족계를 받을 수 있었다. 스리랑카에서 수계를 받고 켈라니야 대학교(University of Kelaniya)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 두 비구니 스님은 인도네시아 상좌부 여성 승원의 개척자들이다. 그들은 사긴(SAGIN 상가 아궁 인도네시아 Sangha Agung Indonesia)에 속해 있으며, 현재 10 명 이상의 사미니 스님들이 같은 전통에서 구족계를 기다리고 있다.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의 여성들은 대승의 전통에 따라 수계를 받은 반면 다수 암자의 여성 그룹이나 개인은 현지 불교 기관에서 아직은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다. 이 두 비구니의 성공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전통에서 수계를 받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여성들에게 희망을 준다.

#### 발표자 이력:

베니따 타누수위토(Venita Tanusuwito)는 자카르타의 한 병원의 치과의사이다. 인도네시아 여성불자협회의 회원이며 인도네시아의 불교 여성, 특히 승원에 관한 글을 쓰고 있지만 전 세계의 불교 여성을 둘러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여성 불교 공동체의 발전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